

# 광주 소상공인 창업, 5년 미만 가장 많고 15년 이상 가장 적다

### 중기부, 실태조사...광주 5년 미만 61%·15년 이상 15.2% 연매출 광주 2억2590만·전남 1억9612만원...평균 밑돌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전국 4만4000여 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벌인 결과 영업을 시작한 지 5년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이 광주가 61.0%로,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광주지역 소상공인 평균 창업횟수는 1.6회로, 대구와 함께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중기부가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확정 통계'에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가운데 영업 기간이 5년 미만인 사업체 비율은 지난 2020년 기준 광주

61.0%·전남 48.5%로, 전년보다 각각 13.9%포인트·11.8%포인트 증가했다.

전국 평균 비율은 51.4%로, 전년(41.9%)보다 9.5%포인트 늘었다.

영업 기간이 5년 미만이라고 답한 광주 소상공인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68.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7대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영업 기간이 15년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광주가 15.2%로, 세종(13.1%)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15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비

율은 광주가 전년보다 3.1%포인트 감소했으며, 전남은 전년보다 9.1%포인트 감소한 18.5%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광주에서 영업 기간이 5년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도·소매업이 62.1%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전국 평균(48.4%)을 크게 웃돌고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광주에 이어 경기(57.3%), 세종(57.0%), 부산(56.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영업 5년 미만이라고 답한 전남 도·소매 소상공인 비중은 30.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광주 74.7%·전남 72.2%로, 전년보다 각각 6.9%포인트, 29.4%포인트 증가했다.

이 비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는 3번째, 전남은 5번째로 높았다.

제조업 소상공인들은 영업 기간을 5년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이 광주 38.5%·전남 34.1% 등으로 다른 업종보다 낮았다.

전남 제조업체들은 15년 이상 영업한 비율이 34.1%로, 서울(35.7%), 부산(35.2%), 대구(34.3%)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다.

광주 15년 이상 영업 제조업체 비중은 28.6%로, 세종(20.0%)과 전북(27.7%), 충북(27.8%)에 이어 전국 4번째로 낮았다.

한편 소상공인 업체당 평균 연매출은 지난 2020년 기준 광주 2억2590만원·전남 1억9612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0.7%(-153만원) 감소, 2.1%(412만원) 증가했다.

광주·전남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전국 평균(2억2833만원)을 밑돌았다.

숙박·음식점업 평균 매출은 광주 1억2045억원·

전남 9985만원으로, 광주는 전국 평균(1억1695만원)을 약간 웃돌았다.

도·소매업 매출도 광주(3억4866만원)는 전국 평균(3억3173만원)을 웃돌고, 전남(2억7553만원)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제조업체 평균 매출은 광주 3억7720억원·전남 3억3621억원으로, 전국 평균(4억1729억원)을 크게 밑돌았다.

중기부는 지난해 6월16일부터 7월30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단독 사업체 약 4만4000개를 대상으로 경영현황 등을 물었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10명 미만이며 매출 기준 숙박·음식점업 등 10억원 미만,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제조업 80억~120억원 이하 사업체를 말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고령 가구에 한가위 온정 꾸러미 전달  
광주은행 송중욱(왼쪽 두 번째) 은행장 등 임직원 20여 명과 김병내(가운데) 광주남구청장은 29일 백운동 광주남구자원봉사센터를 찾아 고령자 가구에 전달할 명절 음식 꾸러미 300상자를 만들었다. <광주은행 제공>

## 광주지방국세청, 중소기업인 세무 어려움 청취



현장소통위원회 간담회 개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직능단체 관계자들은 세무조사 대상 축소 및 조사기간 최소화,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홍보,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대상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운영석 정장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신속히 해결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개정 건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추석 선물 라이브 홍보기획전

중기 회원사 15개 업체 제품 판매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회원사들의 판로 확대와 나눔을 위한 명절선물 특별판매 라이브 홍보기획전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홍보기획전은 홍보하고 판매제의 판로 확대를 돕고,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네이버쇼핑라이브를 통해 1~4부로 나뉘어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등 회원사 15개 업체의 제품을 알리고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지역 여성벤처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광주시 서구 스타트업센터와 지역 청년창업가들도 장소 제공과 촬영 장비 등 라이브방송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했다. 이밖에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는 또 라이브 홍보기획전 외에도 광주·전남 26개 업체가 생산·판매하는 가공식품과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등 다양한 명절선물 상품을 산지 직송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판매전도 진행한다. 협회 홈페이지

(http://www.hovwa.or.kr) 공지사항에서 '추석선물 가이드북'을 내려받을 수 있다. 위지연 회장은 "회원의 판로 확대를 돕고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면서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며 "이번 명절 귀한 선물로 우리지역 여성벤처기업 제품을 선택해 지역경제 성장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는 제품박람회 개최해 수익금 일부로 매년 500만원 상당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창립 9주년을 맞아 지역 소외아동을 돕기 위한 후원금과 생필품 등 1500만원 상당을 후원한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광주세관, 추석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운영

광주본부세관은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수출화물 선적의무기간(1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신청을 처리하는 등 수출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다음달 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지원기간에는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운영하고 서류심사가 필

요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 명절 이후 서류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26.89	(-54.14)	
↓ 코스닥	779.89	(-22.56)	
↑ 금리(국고채 3년)	3.653	(+0.128)	
↑ 환율(USD)	1350.40	(+19.10)	

## 회사 사정상, 매매

1. 대인동 156평, 신안동 176평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평당 1300만원씩

문의. 010-3605-5000

## 투자하실분, 덕남동 임야

- 임야 2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도로접함, 개발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400만원(조정가)

문의. 010-3605-5000